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타당화 연구*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

1차원고접수: 2024.10.07. 수정원고접수: 2024.12.02. 최종게재결정: 2025.03.24.

김도경¹ · 김연하²

¹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im, Do Kyoung¹

Kim, Yeon Ha²

^{1,2}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Winter 등(2012)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8문항으로 구성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 전공 대학교수 2명과 전문번역가가 척도의 내용을 번역하고 육아전문가들의 내용 감수를 거쳤다. 이후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 35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로 양호하였으며, 준거가 되는 영아발달지식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양육유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양육불안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관련 변인에 민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문항분석을 통해 난이도와 변별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한 21문항 척도도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향후 양육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현장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타당화, 양육지식, 양육유능감, 양육불안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 (KEPS), a 28-item scale developed by Winter et al. (2012), designed to measure how much parents are aware of scientifically proven effective parenting practices. To achieve this, two university professors majoring in child studies and a professional translator translated the scale, followed by content review by parenting experts. Data were then collected from 358 parents with children aged 2 to 10, and item analysis was conducted, along with the verification of test-retest reliabil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KEPS was found to be .82, which is considered satisfactory. The KEPS ha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criterion, the Infant Development Knowledge Scale. The KEPS demonstrat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competenc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anxiety, indicating that it sensitively and appropriately responded to related variables. A shortened version of the KEPS that excluded items with low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indices also showed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KEPS is expected to be useful in various fields and studies where objective measurement of parenting knowledge is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validity,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competence, parenting anxie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육지식이란 아동의 발달과정, 돌봄, 양육기술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Breiner, Ford, Gadsden,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6). 양육지식은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아동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양육자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양육지식은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의 선행조건이며 나아가 긍정적인 자녀의 발달을 예측한다(김재희, 김현경, 2021; 민현숙, 문연경, 2013; 이경하, 서소정, 2009; Morawska, Winter, & Sanders, 2009).

* 이 연구는 한국인간발달학회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김연하 (Kim, Yeon Ha)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E-mail. yeonhakim@kh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이경하와 서소정(2009)은 252명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과 자녀의 발달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은 교사가 측정한 영아의 발달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숙과 문연경(2013)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2,078명 어머니들의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행동, 영아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발달지식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영아발달에도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력이 있었다.

Morawska 등(2009)은 68명의 오스트레일리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양육지식과 역기능적인 양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들의 효과적인 양육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아졌다. 양육지식은 고위험 아동들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ichtelmiller 등(1992)은 40명의 초저체중(extremely low birth weight)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영아발달의 약 13%를 설명하였고, 평균을 상회하는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들의 자녀는 평균 이하의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들의 자녀보다 약 1 표준편차 이상의 높은 발달점수를 획득하였다.

부모의 양육지식이 부모의 실제 양육 나아가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은 양육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reiner 등(2016)은 양육지식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으로 아동의 연령과 수준에 따른 전형적인 행동과 발달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적절한 양육행동의 실제에 대한 지식이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양육자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 교육체계, 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다.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을 위

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양육지식의 차원이 다양한데도 국내 양육지식의 연구 대부분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육지식척도 선택의 폭이 제한적임에도 그 원인이 있다. 양육지식 척도를 다룬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MacPhee(1981, 2002)의 영아발달지식척도(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의 축약본(한국아동패널, 2024)이나 변형본(정미현, 2011)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Larsen과 Juhasz(1986)의 아동발달지식척도(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윤형주, 조복희 2004; 이경하, 서소정, 2009) 그러나 이 척도들은 주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연령 폭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Winter, Morawska, & Sanders, 2012)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한다.

Winter 등(2012)의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모의 행동은 무엇인지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정답을 택하게 하는 측정도구이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실험연구를 통해 역기능적인 양육을 예방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그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준거로 한다.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척도들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연령별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을 주로 정답의 준거로 활용한다(Larsen & Juhasz 1986; MacPhee, 1981, 2002).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한 효과적인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Winter 등(2012)은 이를 고려하여 트리플 피 긍정양육프로그램(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 Sanders, 2008)의 내용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를 구성하였다.

트리플 피 긍정양육프로그램은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행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이다.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부모에게 간단하고 실제적인 양육방식을 교육한다. 트리플 피 긍정양육프로그램은 무선표집에 의한 실험연구설계를 통해 역기능적 부모역할 감소, 아동학대예방, 문제행동 개선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실제(evidence-based practice)이다(Sanders, Turner, & Markie-Dadds, 2002; Sanders, 2010). 따라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에서 정답이란 엄정한 실험연구를 통해 역기능적인 양육을 예방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그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검사 측정방식을 채점방식으로 한다. 심리검사는 목적에 따라 크게 능력검사와 성향검사로 나뉘는데(Kaplan & Saccuzzo, 2001) 일반적으로 양육지식척도는 피검자가 정확한 양육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 뒤 이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능력검사에 해당한다. 이는 양육태도, 양육신념, 양육행동처럼 평소 양육에 관한 전형적 수행을 파악하는 성향검사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성향검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리커트 타입이나 행동빈도 채점방식은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검사 측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4개의 양육행동 예시 중 하나의 정답을 고르게 하고 정답을 맞춘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지식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양육을 예방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데 그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국내 적용을 타진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전검사이론에 기초한 문항분석으로서 각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19). 이를 통해 각 문항이 효과적 양육지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문

항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신뢰도 검증으로서 내적 일관성 검사와 검사-재검사 신뢰도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 양육지식척도가 일관성 있게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지와 측정된 지식이 시간이 지나도 안정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기존 양육지식척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는 준거타당도이다. 이를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식척도의 한국어판 척도(한국아동패널, 2024) 점수와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이 있을 법한 변인과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렴하는지 살펴보는 수렴타당도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양육지식은 양육유능감과 정적 관련이 양육불안감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있다(한혜림, 2020; Winter et al., 2012). 따라서 본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점수와 양육유능감과 양육불안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점수는 양육유능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양육불안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Winter 등(2012)의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는 연구이다. 본 효과적 양육지식척도가 타당화 된다면 향후 현장에서 다양한 연구대상자들의 양육지식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 358명이다.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남자는 7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79%, 여자는 28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8.21%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313명으로 전체의 86.03%이다. 연령은 30대가 254명, 70.95%로 가장 많았다. 검사-재검사는 본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31명 (남 = 1명, 여 = 30명, 평균연령 = 36.35세, 평균자녀수 = 1.10명)을 대상으로 10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Winter 등(2012)의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28문항 사지선다형 척도이다.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가상의 양육 상황을 제시하고 4개의 지문 중 가장 효과적인 부모의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단일요인이며 맞으면 1,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한다. 총점은 28점 만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을 촉진하며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양육방식을 많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영아발달지식척도(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MacPhee(1981, 2002)가 개발한 영아발달지식척도 중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24). 응답자는 각 문항을 읽고 ‘그렇다(1)’ 또는 ‘아니다(0)’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가능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3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최솟값은 2, 최댓값은 12였다. 본 연구에서 영아발달지식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8.49(2.34), 왜도는 -.20, 첨도는 -.79이다. 영아발달지식 측정 도구의 신뢰도(Kuder-Richardson 20)는 .60이었다.

3) 양육효능감 및 불안 척도

(1)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

본 연구에서는 신숙재(1997)가 번안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을 오미연(2005)이 사용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양육효능감 척도 중 유능감과 불안감과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가된다.

양육 유능감은 9문항으로 부모의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나타내는 문항이다 (예:“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 점수 범위는 9에서 4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솟값은 10, 최댓값은 45였다. 양육 유능감의 평균(표준편차)은 34.37(8.00), 왜도는 -1.21, 첨도는 1.00이다. 신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 = 358)

특성	구분	F(%)	M(SD)
성별	남	78(21.79)	
	여	280(78.21)	
학력	고졸 이하	25(6.98)	
	초대졸	20(5.59)	
	대졸	308(86.03)	
	대학원졸	5(1.40)	
연령	20대	6(1.68)	37.19(4.24)
	30대	254(70.95)	
	40대 이상	98(27.37)	
자녀수	외동	318(88.83)	1.12(.34)
	둘	38(10.61)	
	셋 이상	2(.56)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0세	3(.84)	5.11(1.78)
	1세	6(1.68)	
	2세	16(4.47)	
	3세	34(9.50)	
	4세	64(17.88)	
	5세	95(26.34)	
	6세	68(18.99)	
	7세	40(11.17)	
	8세	21(5.87)	
	9세	8(2.23)	
	10세	3(.84)	

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양육 불안감은 4문항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이다(예: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가능 점수 범위는 4에서 2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솟값은 4 최댓값은 20이다. 평균(표준편차)은 8.90(4.29)이며 왜도는 .58, 첨도는 -.80이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연구절차

영어로 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Winter et al., 2012)는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두 명이 1차 번역을 하였고, 영어권에서 성장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원척도의 의미와 상황에 번역본이 부합하는지 감수를 받았다. 의미와 상황이 상이한 문항은 없었으나 원척도에 나오는 영문 이름(예: Caren, Steven)은 이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한글 이름으로 대체하지 않고 ‘자녀’로 변경하였다.

이후 A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전문가 3명에게 의뢰하여 우리나라 문화와 양육환경에 척도의 내용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였다. 그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조사나 어미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모든 자료는 경기도의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안내문과 구글 설문 링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모든 설문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총 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미혼이거나 자녀의 연령이 만 2세에서 10세 해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14부의 자료가 제외되었다. 자료수집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음료 교환권(4,500원 상당)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검사-재검사를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1명의 연구대상자에게 다시 효과적 양육지식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중 31명이 응답하였다. 본조사와 검사-재검사 자료수집의 간격은 약 10일이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 특성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백분율)를 통해 살펴보았다. 고전검사이론에 기초하여 문항 난이도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정답자 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성태제, 2019). 난이도의 수치가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변별도는 ‘상위 27% 정답자 비율 - 하위 27% 집단의 정답자 비율’로 산출하였다(성태제, 2019; Kelley, 1939). 변별도의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적 양육지식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잘 구별해주는 문항임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타당도(영아발달지식척도가 준거), 수렴타당도(양육유능감과 양육불안감이 수렴변인)는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척도의 내적 타당도는 이분형 척도인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와 발달지식척도의 경우 Kuder-Richardson 20으로, 양육효능감 및 불안의 경우 Cronbach's α 로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효과적 양육지식 28문항의 문항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난이도의 경우 .14에서 .81의 분포를 보였다. 변별도의 경우 -.08에서 .84의 분포를 보였다. 문항 난이도의 경우 .30 이상, 문항변별도의 경우 .3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성태제, 2019).

문항분석 결과, 총 7문항이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7문항(문항 번호 2, 11, 22, 23, 25, 26, 28)을 제외한 21문항으로 구성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이후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함께 파악하였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8점 만점)의 최솟값은 2, 최댓값은 24이며 평균은 14.47($SD = 5.36$)이다. 100%로 환산한 평균 정답률은 51.68%이었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21점 만점)의 경우 최솟값은 1, 최댓값은 21이며

표 2.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28문항 문항 분석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항목-제거 시 신뢰도
문항1	.43	.30	.82
문항2 ⁺	.20	-.08	.82
문항3	.66	.77	.80
문항4	.53	.84	.80
문항5	.51	.53	.82
문항6	.52	.46	.81
문항7	.70	.61	.81
문항8	.40	.44	.82
문항9	.46	.53	.82
문항10	.69	.74	.80
문항11 ⁺	.20	-.02	.83
문항12	.68	.80	.80
문항13	.63	.60	.81
문항14	.69	.54	.81
문항15	.58	.53	.81
문항16	.81	.56	.80
문항17	.59	.80	.80
문항18	.43	.40	.82
문항19	.73	.72	.80
문항20	.67	.54	.81
문항21	.77	.53	.81
문항22 ⁺	.23	.19	.82
문항23 ⁺	.28	.27	.82
문항24	.49	.42	.82
문항25 ⁺	.36	.15	.82
문항26 ⁺	.64	.20	.82
문항27	.44	.59	.81
문항28 ⁺	.14	.07	.82
척도평균(표준편차) = 14.47(5.36), 최대(최소) = 12(24), 왜도(첨도) = -.50(-1.00)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평균(표준편차) = 12.42(5.11), 최대(최소) = 1(21), 왜도(첨도) = -.37(-1.03)			

주. +난이도와 변별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

평균은 12.42($SD = 5.11$), 평균 정답률은 59.13%이었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28문항 중 문항 난이도(정답률)가 가장 낮은 문항은 28번, 가장 높은 문항은 16번이다. 변별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2번 가장 높은 문항은 4번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2.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신뢰도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1차 검사와 2차 검사 점수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82,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의 1차 검사와 2차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 = .90, p < .001$).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80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간주한다(Kaplan & Saccuzzo, 2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Kuder-Richardson 20)는 .82이었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6이었다.

3.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타당도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총점과 준거척도인 영아발달지식척도 총점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7,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과도 정적 상관($r = .66, p < .001$)이 있었다. 준거타당도의 경우 .60이상의 상관은 우수한 것으로 간주된다(Kaplan & Saccuzzo, 2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총점과 양육 유능감 총점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4,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 총점과 상관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 = .58,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총점과 양육불안감 총점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0,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 총점과도 부적으로 유의하게 수렴하였다($r = -.56, p <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총점은 연구대상자 특성 중 학력, 자녀 수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r = .20, p < .001$) 자녀 수가 많을수록($r = .20, p < .001$)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총점이 높았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21 총점도 학력이 높을수록($r = .21, p < .001$) 자녀가 많을수록($r = .20, p < .001$) 점수가 높았다.

표 3.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문항난이도와 변별도에 따른 문항의 내용

	가장 낮음	가장 높음
난이도	28. 4살 아들이 동생과 놀다가 동생을 때렸다. 엄마가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때려서 아들을 타임아웃 시켰다. 이때 엄마가 해야 할 행동은? 1) 아이가 잠시 불평을 멈추었을 때 나오고 싶으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21.79%). 2) 30초 기다린 후에 아이에게 가서 진정시켜준다 (55.03%). 3) 아이를 나오게 하고 오늘 밤에는 TV를 못 본다고 말해준다(9.50%). 4) 어떤 불평도 무시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조용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한다(13.69%, 정답).	16.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포용해 주면 아이들은? 1)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의존적이 된다(6.15%). 2)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80.73%, 정답). 3)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워진다(8.38%). 4) 이성에 대한 관심이 빨리 생길 수 있다(4.75%).
변별도	2. 자녀가 성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은? 1) 신나고 흥미로운 놀거리가 많은 환경(20.39%, 정답). 2) 부모가 미리 여러 활동들을 준비해 놓은 환경(17.60%). 3) 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놀이 환경(25.98%). 4)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놀 것 같은 환경(36.03%).	4. 부모가 한창 바쁘게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보여줄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1) “엄마 바빠,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한다(7.26%). 2)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10.89%). 3) 적어도 하루에 30분 동안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29.05%). 4) 잠시 아이에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아이가 하던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한다(52.79%, 정답).

표 4. 영아발달지식, 양육유능감, 양육불안감, 효과적 양육지식과의 상관관계

(N = 358)

	1	2	3	4	5
1. 효과적 양육지식	1				
2. 효과적 양육지식-21	.97***	1			
3. 영아발달지식	.67***	.66***	1		
4. 양육유능감	.54***	.58***	.41***	1	
5. 양육불안감	-.50***	-.56***	-.41***	-.86***	1

*** $p < .001$.

표 5. 연구대상자 특성과 효과적 양육지식과의 상관관계

(N = 358)

	1	2	3	4	5	6
1. 효과적 양육지식	1					
2. 효과적 양육지식-21	.97***	1				
3. 성별	.10	.09	1			
4. 학력	.20***	.21***	-.05	1		
5. 연령	.05	.07	-.05	.22***	1	
6. 자녀수	.19***	.20***	-.22***	-.02	.20***	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Winter 등(2012)의 효과적 양육지식척도(The 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를 타당화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 전공 대학교수 2인과 전문번역가가 척도를 번역하고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육아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다. 358명의 만 2세에서 10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문항분석, 신뢰도, 준거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8문항으로 구성된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평균 정답률은 약 52%이었다. 28문항 중 7문항이 정답률이 너무 낮거나(문항 난이도 .30 미만),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문항 변별도 .30 미만) 나타났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28번으로 ‘동생을 때린 아이를 타임아웃을 활용해 훈육하는 방법’에 관하여 묻는 문항이다. 효과적 양육지식

척도는 ‘아동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훈육방식’을 정답으로 채택하였으나 연구대상자들은 ‘30초 후에 아이를 달래주는 것’을 가장 많이 정답으로 선택하였다(54.5%).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자기조절을 통한 문제행동 수정보다는 자녀의 불편한 감정을 달래주는 것을 효과적인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정답과의 차이는 올바른 양육에 대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별력이 가장 낮은 문항은 2번으로 상위집단의 정답률(9%)이 하위집단의 정답률(17%)보다 낮아서 변별력을 상실하였다. 문항 2는 ‘자녀의 성인 의존도를 낮추는 놀이 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는 ‘몰입할 수 있는 흥미로운 놀거리가 많은 환경’을 정답으로 채택하고 있다. 오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반응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변별력의 경우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고 특히, 오답 반응의 매력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심도 있게 오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로 측정할 부모의 양육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문항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양육지식을 측정함을 알 수 있었다. 난이도와 변별도가 부적절한 7문항을 제거한 효과적인 양육지식-21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28문항 원척도보다 증가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의 총점은 영아발달지식척도와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어 준거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효과적인 양육지식-21의 경우 상관지수가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영아발달지식척도 점수와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는 양육유능감과도 정적 상관을 양육불안감과도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본 척도가 관련 변인에 민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양육지식

-21의 경우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약간 상승하여 관련 변인에 더 강력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효과적인 양육지식이 연구대상자 특성에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지식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학력과 자녀 수가 양육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이경하, 서소정, 2009; Bornstein, Cote, Haynes, Hahn, & Park, 2022).

종합하면, 본 척도는 기존의 영아 발달지식을 주로 측정하던 영아발달지식척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만 2세에서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다양한 양육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측정 도구이다. 양육지식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평생에 걸쳐 바람직한 행동양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척도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양육지식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향후 양육지식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척도의 전문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를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양육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현장과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는 실제로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예비 부모와 조부모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예비교사, 교사 등 양육과 관련된 전문적 조언을 해야 하는 여러 직업군의 양육지식을 파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문항분석을 통해 난이도와 변별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한 효과적인 양육지식척도-21의 경우 28문항의 원척도에 비해 개선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양육지식척도-21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28문항 원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본 척

도의 문항분석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만약 다른 집단(예: 예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일단 원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문항분석을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과적 양육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 양육지식의 수준이 높은 부모가 실제로 이러한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효과적 양육지식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실제로 문제행동 수준이 낮고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 효과적 양육지식척도 점수와 추후 청소년기 문제행동수준이나 사회성 등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예측타당도를 확인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정답이 있으므로 일반인들도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양육지식이나 양육방식이 과학에 기초한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손쉽게 양육지식 진단 및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2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358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비율이 21.79%, 고졸 이하가 7%로 우리나라 부모를 대표하는 표집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 표집된 인원도 전체 사례 수의 10%를 목표로 하였으나 31명으로 미치지 못하였고 남성은 단 1명뿐이었다. 추후, 성별, 자녀연령, 지역, 학력, 소득 등을 고려하여 더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구성하고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문항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효과적 양육지식척도의 문항을 고전 검사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하여 각 문항의 문항특성곡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한 문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셋째, 효과적 양육지식척도는 트리플 피 긍정양육프로그램이라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증거기반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도입되어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양육의 효과성에는 국간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효과가 검증된 양육방식을 토대로 양육지식척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육방식이 증거기반 실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선표집을 통한 실험연구를 통해 실제로 긍정적인 아동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러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양육방식의 효과성을 확인한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양육방식을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엄정한 효과검증을 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양육지식 척도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는 만 2세에서 10세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가상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양육방식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모가 모든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식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추후 영아기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효과적 양육방식에 대한 척도개발도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지식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거나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희, 김현경 (2021). 부모의 양육인지가 양육실제를 통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인간발달연구*, 28(2), 73-95.
<https://doi.org/10.15284/Kjhd.2021.28.2.73>

-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https://doi.org/10.5934/KJHE.2013.22.1.43>
- 성태제 (2019). 교육평가의 기초. 한국: 학지사.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연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주, 조복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정미현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식 척도개발. *부모교육연구*, 8(1), 69-85.
- 한국아동패널 (2024). 도구프로파일.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161에서 2024년 3월 25일 인출
- 한혜림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823-835.
<https://doi.org/10.5934/kjhe.2020.29.6.823>
- Bornstein, M. H., Cote, L. R., Haynes, O. M., Hahn, C. S., & Park, Y. (2022). *Parenting: Selected writings of Marc H. Bornstein* (pp. 195-231). New York: Routledge.
<https://doi.org/10.1037/a0020677>
- Breiner, H., Ford, M., Gadsden, V. L.,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6). *Parenting matters: Supporting parents of children ages 0-8*.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21868>
- Dichtelmiller, M., Meisels, S. J., Plunkett, J. W., Bozytnski, M. E. A., Claflin, C., & Mangelsdorf, S. C.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knowledge to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6(3), 210-220.
<https://doi.org/10.1177/105381519201600302>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roceedings of the 8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38.
- Kaplan, R. M., & Saccuzzo, D. P. (2001).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Belmont, California: Wadsworth/Thomson Learning.
- Kelley, T. L. (1939). The selection of upper and lower groups for the validation of test ite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1), 17.
<https://doi.org/10.1037/h0057123>
- Larsen, J. J., & Juhasz, A. M.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
- MacPhee, D. (1981). *Manu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Fort Collins, Colorado: Colorado State University.
- Morawska, A., Winter, L., & Sanders, M. R. (2009). Parenting knowledge and its role in the prediction of dysfunctional parenting and disruptive child behaviour.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2), 217-226.
<https://doi.org/10.1111/j.1365-2214.2008.00929.x>
- Sanders, M. R. (2008).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public health approach to strengthening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4), 506.
<https://doi.org/10.1037/0893-3200.22.3.506>
- Sanders, M. R. (2010). Adopting a public health approach to the delivery of evidence-based parenting interventions. *Canadian Psychology*, 51, 17-23.
<https://doi.org/10.1037/cap0000023>
- Sanders, M. R., Turner, K. M., & Markie-Dadds, C. (2002).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multilevel, evidence-based system of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Prevention Science*, 3(3), 173-189.
- Winter, L., Morawska, A., & Sanders, M. (2012). The 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 (KEPS): A tool for public health approaches to universal parenting program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3, 85-97.
<https://doi.org/10.1007/s10935-012-0268-x>

부록

효과적 양육지식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Knowledge of Effective Parenting Scale)

질문을 읽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정답
1. 다음 중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은?	
① 아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② 전기 콘센트 커버 같은 유아용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③ 아이에게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④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③
2. 자녀가 성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은?	
① 신나고 흥미로운 놀거리가 많은 환경 ② 부모가 미리 여러 활동들을 준비해 놓은 환경 ③ 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놀이 환경 ④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놀 것 같은 환경	①
3. 자녀를 훈육할 때 중요한 것은?	
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일관성 있는 반응 ② 약간의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게 해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누가 어른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해서 알려주는 것 ④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화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	①
4. 부모가 한창 바쁘게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보여줄 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	
① “엄마 아빠, 아파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한다. ②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③ 적어도 하루에 30분 동안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 ④ 잠시 아이에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아이가 하던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한다.	④
5. 양육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① 나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아이들은 종종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③ 규칙에 너무 엄매이지 말고, 자녀를 아이답게 자라도록 놔둔다. ④ 자녀는 항상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6. 성공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① 스트레스 관리나 이완 수업 듣기 ② 모든 여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기 ③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줄이기 ④ 부모 자신을 돌보고 가끔 자녀와는 떨어져 쉬는 시간을 갖기	④
7. 모든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있고 이는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① 아이들은 타고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바꿀 방법은 없다. ② 엄마나 아빠가 어린 시절에 비슷했다면, 자녀의 문제행동에 책임이 있다. ③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났다면 부모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양육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④ 기질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이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③
8. 아이가 엄마와 쇼핑 중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한다. 엄마가 오늘은 안된다고 하자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 엄마가 다시 안 된다고 하자 아이는 울면서 바닥에 누워 생떼를 쓴다. 앞으로 엄마와 쇼핑할 때 아이가 또 생떼를 쓸 가능성을 높이는 엄마의 반응은?	
① 장난감을 사 주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한다. ② 그만하라고 말한다. ③ 아이의 행동을 무시한다. ④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①
9. 아빠가 아이에게 TV를 그만 보고 씻으라고 한다. 아이는 “싫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광고가 나와”라고 한다. 아빠는 다시 연성을 높이고 아이는 손으로 귀를 막는다. 아빠는 화가 나서 아이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1주일 간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한다. 아이는 멀떠름한 표정으로 아빠의 지시를 따른다. 이 상황에서 아빠가 보여준 양육방식은?	
① TV 때문에 아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②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협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다. ④ 사건을 만들지 말고 그냥 아이에게 TV를 보게 하라.	②

질문을 읽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정답
10. 11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동생에게 종종 소리를 지른다. 아이가 이 행동을 배웠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고 ② 큰 소리로 음악을 듣다가 청각이 큰 소리에 익숙해져서 ③ 부모가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④ 타고난 성격 때문에	③
11. 아이가 소파 위에서 뛰고 있다. 그만두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① 소파에서 뛰지 말고 뛰고 싶다면 밖에서 뛰라고 알려준다. ② “너무 산만하게 굴지마!”라고 말한다. ③ 소파에서 뛰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다시 설명한다. ④ 아이에게 왜 소파를 부수려고 하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①
12. 3살과 2살 아이들이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았다. 장난감이 온 집안에 흩어져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그만 놓고 모든 장난감을 치우라고 말한다. ②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타임아웃을 시킨다. ③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게 해준 후, 부모가 장난감 치운다. ④ 아이들에게 하나씩 치우자고 제안하며 장난감 정리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④
13. 부부 사이에 의견 갈등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평화를 유지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형태의 갈등도 보여주지 않는다. ② 침착을 유지하면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아이에게 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④ 아이들도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므로 서로 화가 날지라도 부부사이에 할 말은 정확하게 한다.	②
14. 토요일 아침에 엄마가 다림질을 하고 있다. 4살 아들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다가온다. 가장 바람직한 어머니의 반응은?	
① 바쁘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② 아이의 방해를 무시한다. ③ 다림질을 멈추고 아이에게 관심을 준 후에 다시 다림질을 한다. ④ 다림질을 다 한 후에 보겠다고 말한다.	③
15.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있다. 아이들이 뒷자 리에서 시끄럽게 싸우면 아빠는 집중이 안 돼서 운전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①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라디오/CD 소리를 크게 켜다. ② 아빠가 운전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③ 아빠가 오늘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도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④ 아이들과 함께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③
16.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포옹해 주면 아이들은?	
①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의존적이 된다. ②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③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워진다. ④ 이성애 관련 관심이 빨리 생길 수 있다.	②
17.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동안 7살 아이가 혼자 블록으로 큰 빌딩을 만들었다.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엄마의 관심과 인정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① “와 멋지다. 잘했어.” ② 칭찬하면 자기중심적이 되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③ 아이를 잠시 지켜보면서 먼저 빌딩에 대해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④ “엄마가 전화할 때 혼자 놀고 있었구나. 고마워. 뭘 만들었는지 설명해 줄래?”	④
18. 10살 아이가 축구를 할 때 규칙을 지키고 코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어려워한다. 아빠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다음 축구 시간에 아빠는 아이가 규칙을 잘 지키고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가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① 잘했기 때문에 새 장난감을 사 준다. ② 다른 아이들 앞에서 아들에게 잘하고 있으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해준다. ③ 아이가 자신의 방향을 쳐다볼 때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④ 옆에 앉아있는 부모에게 아들의 훌륭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한다.	③
19.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칭찬 스티커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① 스티커도 주고 칭찬이나 긍정적인 관심도 함께 준다. ②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일관성 있게 스티커를 뺏는다. ③ 처음에는 가끔 스티커를 주고 일단 새로운 행동을 배우면 자주 준다. ④ 아이가 스티커를 달라고 할 때 만 스티커를 준다.	①

질문을 읽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	정답
20. 엄마가 5세와 8세 자녀를 데리고 친척 집을 방문하려고 한다. 엄마는 아이들이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방문 규칙을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잘 들어. 지난번 이모 집에 갔을 때 정말 버릇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얹전하게 행동해야 해. 알겠지?” ②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해. 엄마 말을 잘 듣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하면 바로 가는 거야. 괜찮지? 엄마가 금방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 볼래?” ③ “오늘 뭐 할지 엄마가 미리 말해줄게. 우리 오늘 이모네 집에 갈 거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 알겠지?” ④ “준비됐니? 가자.”	②
21. 아빠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아이를 부르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저녁이 다 됐다.” ② “저녁 식사 시간이야. 손을 씻고 식탁으로 와.” ③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아. 저녁 시간이야.” ④ “왜 이렇게 꾸물거려? 저녁이 다 됐다고 했잖아.”	①
22. 엄마가 퇴근 후에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분주하게 저녁을 차리고 있다. 아이가 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 가장 효과적인 어머니의 반응은?	
① 얼마나 이상한 짓인지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같은 소리를 낸다. ②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아이를 방으로 보낸다. ③ 소리를 무시하고 적절하게 놀 때 칭찬한다. ④ 여전히 저녁을 만들면서,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버릇없다고 설명하고 조용히 놀라고 한다.	③
23. 엄마가 장난감을 치우라고 했지만 6살 아이가 싫다고 한다. 엄마가 다시 말하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온 방에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고, 오늘 간식은 없다고 말한다. ② 엄마가 장난감을 치우고, 아이에게 이번 주 동안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다고 말한다. ③ 아이를 꼭 안아주어 진정시키고 장난감을 치우는 것을 도와준다. ④ 아이를 타임아웃 시키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를 내보내고 다시 장난감을 치우라고 한다.	④
24. 아빠가 아이를 재우려고 한다.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고 물을 마셨다. 아빠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잘 자.”라고 하였다. 나중에 아이가 다시 방에서 나와 “나 잠이 안 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라고 한다. 가장 적절한 아빠의 반응은?	
①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좀 더 오래 놀도록 허락한다. ② 아이에게 잠자리 시간 규칙을 다시 말해주고 아이 방으로 데려간다. ③ 아이를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④ 아이를 달래고 다시 재우기 위해 함께 아이 방에 가서 머문다.	②
25. 저녁 식사 30분 전에 아이가 엄마에게 과자를 달라고 한다. 엄마는 “곧 저녁을 먹으니까. 기다려야 해.”라고 한다. 아이는 화를 내고 울기 시작하지만, 엄마는 다시 “안돼”라고 한다. 아이는 계속 울면서 바닥에 엎드려 소리를 지른다. 이때 엄마가 해야 할 행동은?	
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아기, 정말 화가 났구나.”라고 한다. ② 아이를 주의 집중시킨 후, 식사 전에는 단것을 먹지 않는 규칙을 다시 알려준다. 향이나 불평을 무시하고 과자를 주지 않는다. ③ “하나만 줄게, 그러니 더 달라고 하지 마.”라고 말한 후 아이에게 쿠키를 준다. ④ 이 기회에 단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살이 찌고 이가 상하고, 식사가 맛이 없어지는 등)를 아이에게 말해준다.	②
26. 오늘 아침 3살 아이가 세 번이나 새끼 고양이와 꼬리 잡아당겼다. 가장 효과적인 부모의 대응은?	
①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무섭게 말한다. ② 아이의 행동을 무시하고, 새끼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깨닫도록 놔둔다. ③ 아이를 집중하게 한 후, 새끼 고양이의 꼬리를 잡지 말라고 하고, 부드럽게 새끼 고양이를 만지는 방법을 보여준다. ④ 아이에게 동물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한다.	③
27. 30개월 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이 상황에 서 어떤 말을 하면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까?	
① “아, 이거 말이구나. 참 멋진 말을 그렸네!” ② “아빠한테 다른 동물도 그려줄 수 있어?” ③ “주말에 우리가 본 말들처럼 생겼다. 기억나지?” ④ “멋진 말이다. 말은 어떤 소리를 내고 뭘 먹고 살아?”	④
28. 4살 아들이 동생과 놀다가 동생을 때렸다. 엄마가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때려서 아들을 타임아웃 시켰다. 이 때 엄마가 해야 할 행동은?	
① 아이가 잠시 불평을 멈추었을 때 나오고 싶으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② 30초 기다린 후에 아이에게 가서 진정시켜준다. ③ 아이를 나오게 하고 오늘 밤에는 TV를 못 본다고 말해준다. ④ 어떤 불평도 무시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조용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한다.	④

주. 효과적 양육척도21은 7문항 (문항번호 2, 11, 22, 23, 25, 26, 28) 제외.